

2026/9/2

화장품

권우정 책임연구원
20240006@iprovest.com

ULTA 실적 합의: 미국은 지금 K-뷰티 유통 전쟁!

2분기 ULTA 실적은 향수 및 K-뷰티 견조한 성장으로 시장기대치 상회 시현. 특히 K-뷰티는 강한 두 자릿수 성장하며 견조한 모멘텀 확인
미국에서 뷰티 카테고리 경쟁 심화 중이며, 이 중 K-뷰티 유통 확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

2QFY26 Review: 향수 & K-뷰티 카테고리 강세로 시장기대치 상회

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30.4억달러(YoY 9%), 3.8억달러(YoY 10%)으로 시장기대치 상회. 동일점포매출은 YoY 3.8% 증가했으며, 희석 EPS는 YoY 13% 증가. 향수 및 K-뷰티 카테고리 고성장에 따른 호실적 시현. 카테고리별로는 향수 YoY high-teen, 헤어케어 HSD, 메이크업 Flat, 스킨케어&웰니스는 소폭 감소 시현(K-뷰티, 웰니스 두자릿수 성장에도 전년 바디케어 높은 기저 영향으로 감소).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은 메이크업 37%, 스킨케어 24%, 헤어케어 20%, 향수 13% 기록. 금번 15개 신규 브랜드를 론칭했으며, 이 중 K-뷰티 브랜드는 5개를 기록(닥터멜락신, 넘버즈인, 닥터리쥬얼, 클리어디어, 센텔리안 24).

*K-뷰티 관련 코멘트

금번 호실적 요인으로 K-뷰티의 고성장을 언급했으며, K-뷰티 매출은 강한 두자릿수 성장 시현. 특히 메디큐브, 아누아, 피치앤릴리 중심 강세 지속. ULTA는 K-뷰티의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,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시장 내 K-뷰티 리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. 특히 25년 8월 K-뷰티 월드 론칭 이후 K-뷰티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 K-뷰티 브랜드 및 SKU 수 지속 확대 중. 금번 K-뷰티 매출의 약 절반은 ULTA 독점 브랜드/제품에서 발생.

*미국 유통 경쟁 상황 관련

한편, 최근 화장품 리테일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. 현재 세포라, 타깃, 월마트 등 경쟁사들은 뷰티 카테고리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, 프로모션 강도도 강화 중임. 어닝콜에서도 경쟁 심화 관련 질문이 많았으며, 이 중 상당 부분은 K-뷰티 유통 확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님. 세포라의 올리브영 삼인삼, 다수 리테일러들의 K-뷰티 유통망 확대, 월마트의 매스 뷰티 강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. 언급된 채널 모두 K-뷰티 확대를 적극적으로 확대 중인 상황임. 세포라는 스킨케어 점유율이 하락했으며, 해당 카테고리 강화를 위해 올해 초 올리브영과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음. 파트너십 발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미국 대부분 점포에 올리브영 삼인삼 론칭. 한편, 올해 8월 ULTA와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타깃은 자체적으로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 중이며, K-뷰티 카테고리 강화 중. 월마트도 K-뷰티 카테고리 적극적인 확대 중.

*가이던스 상향

상반기 호실적 달성으로 FY26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. FY26 순매출 성장률을 YoY 6.7%~7.2%(기존 6~7%), 희석 EPS 증가율을 YoY 11.9~13.1%(기존 10.6~12.3%)으로 상향 조정.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.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_2026.06.30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4.7%	4.6%	0.7%	0.0%

[업종 투자의견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